

COME TOGETHER



아산무궁화축구단
월간 매거진 **함께해U**

제6호

2017년 07월

REVIEW & PREVIEW

극한 대진 7월,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하다!

'단독 선두' 경남을 제지할까?

INTERVIEW

아산의 공격을 이끄는 김현의 이야기

"골과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QUIZ

퀴즈도 풀고, 경품도 타자!

JULY HOME MATCH

아산  VS  안산
07월 01일(토) 19:00 @이순신종합

아산  VS  성남
07월 08일(토) 19:00 @이순신종합



푸드렐리

EG the1

 세계물산 **BASSO**

 신성건설  미소지움

 **IMPERIAL SPORTS**
(유)임페리얼 스포츠

ASAN MUGUNGHWA RANKING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경남	42	12	6	0	32	14	18
2	부산	35	10	5	3	29	16	13
3	아산	29	8	5	4	21	13	8
4	부천	26	8	2	8	26	23	3
5	성남	24	6	6	6	13	14	-1
6	수원FC	23	5	8	5	21	22	-1
7	안양	22	6	4	8	22	27	-5
8	안산	16	4	4	10	18	31	-13
9	서울E	15	3	6	9	16	26	-10
10	대전	10	2	4	11	21	33	-12

ASAN MUGUNGHWA ATTACK POINT PLAYER



GOAL
TOP PLAYER

김은선

3 GOAL

10 GAME



ASSIST
TOP PLAYER

한지호

3 ASSIST

16 GAME

K LEAGUE CHALLENGE 15ROUND



1 승 0



ASAN
MUGUNGHWA

2017.06.05(MON) 19:00
@YISUNSIN
1,163

SEOUL
E-LAND

59'	이재안	골	-
11	슈팅	9	
5	유효슈팅	3	
12	파울	18	
2	경고	4	
0	퇴장	0	
3	코너킥	2	
18	프리킥	19	
7	오프사이드	0	
57%	점유율	43%	

K LEAGUE CHALLENGE 16ROUND



1 패 0



SEONGNAM
FC

2017.06.12(MON) 20:00
@TANCHEON
2,845

ASAN
MUGUNGHWA

10'	박성호	골	-
11	슈팅	10	
4	유효슈팅	4	
11	파울	19	
1	경고	5	
0	퇴장	0	
4	코너킥	7	
20	프리킥	17	
6	오프사이드	1	
41%	점유율	59%	



ASAN MUGUNGHWA
TOP P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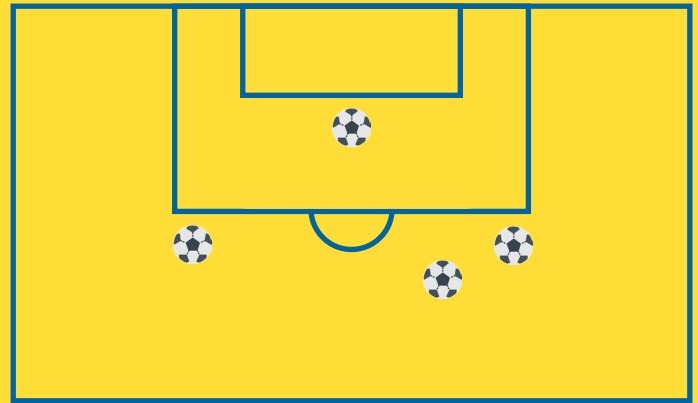
SHOTS
TOP PLAYER

이현승

25 SHOTS

12 GAME

ASAN MUGUNGHWA
GOAL POSITION




FOUL
TOP PLAYER

김준엽

25 FOUL

15 GAME

1 3

아산 특점은 오른발로!
4골 중 3골이 오른발

K LEAGUE CHALLENGE 17ROUND



1 무 **1**

2017.06.18(SUN) 19:00
@YISUNSIN 1,151



ASAN MUGUNGHWA vs **GYEONGNAM FC**

92' 김현	골	90' 최영준
10	슈팅	13
5	유효슈팅	4
9	파울	14
1	경고	4
0	퇴장	0
3	코너킥	9
14	프리킥	10
1	오프사이드	0
53%	점유율	47%

K LEAGUE CHALLENGE 18ROUND



0 승 **2**

2017.06.25(SUN) 19:00
@ANYANG 2,008



FC ANYANG vs **ASAN MUGUNGHWA**

-	골	47' 이창용 74' 한의권
12	슈팅	16
3	유효슈팅	6
17	파울	12
4	경고	2
0	퇴장	0
3	코너킥	3
13	프리킥	19
2	오프사이드	0
42%	점유율	58%





ASAN MUGUNGHWA
PREVIEW

극한 대진 7월,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하다!

아산무궁화축구단이 극한 대진이 기다리고 있는 7월 일정을 시작한다. 아산은 최근 K리그 챌린지에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안산 그리너스, 성남 FC 그리고 최하위지만 점차 강해지고 있는 대전시티즌을 만난다. 여기에 단독 선두 경남FC까지 만난다.

7월 경기 중 어느 한 경기도 쉽게 예상하고, 승리가 보장되는 경기가 없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경기는 경남과의 경기다. K리그 챌린지에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경남과의 맞대결은 우승과 승격을 시즌 목표로 세운 아산무궁화로써는 반드시 꺾어야 할 팀이다.

하지만, 올 시즌 경남과의 2차례 맞대결에서 아산무궁화는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이번 맞대결에서 경남에 시즌 1패를 안겨준다면 앞으로의 선두 경쟁에서 아산이 경남을 추격할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할 경기다.

경남과의 경기와 더불어 중요한 경기가 홈에서 가질 안산, 성남과의 경기다.

홈 승률이 높은 아산으로서는 홈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와 홈 팬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답할 수 있으므로 홈 경기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홈 경기 상대인 안산과 성남은 쉬운 상대가 아니다. 안산은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예상 밖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 또한 시즌 초반의 부진을 털고 어느덧 중위권으로 도약한 상황이다. 쉽게 봤다간 오히려 아산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 있는 대진이다. 올 시즌 성적만 두고 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전과의 경기도 쉽지 않다. K리그 챌린지 최하위에 랭킹되어 있지만, 탈꼴찌를 향한 대전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아산으로서는 어느 한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다.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선두, 순위 경쟁을 시작 한 K리그 챌린지에서 아산이 유리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 7월 4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번 7월은 아산에 중요하다. 아산이 이번 7월에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ULY MATCH UP



VS



아산무궁화

안산 그리너스

자존심이 걸린 맞대결 승자는?

07월 01일(토) 19:00 @이순신종합

한번씩 승패를 주고 받은 아산과 안산이 진정한 강자를 가린다. 무궁화축구단의 이전 연고지였던 안산과의 맞대결은 자존심이 달린 싸움이다. 경기 외적인 두 팀의 경쟁 그리고 승패에서 어느 팀이 앞서나가게 될지 주목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



VS



아산무궁화

성남 FC

성남에 약한 아산, 달라진 성남을 만나다

07월 08일(토) 19:00 @이순신종합

아산무궁화가 유독 성남FC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례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한 아산무궁화는 성남에 통렬한 복수를 꿈꾼다. 시즌 초반의 부진을 털고, 중위권까지 도약한 성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승부처로 예상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



VS



대전 시티즌

아산무궁화

이번 대결 승자는?

07월 15일(토) 19:00 @대전월드컵

창단 이후 단 한 차례의 경기에서 승패를 가르지 못한 아산무궁화. 역대전적에서 4승 2무 2패로 앞서는 유리함을 이번 대전과의 경기에서 펼친다면 이기지 못 할 이유는 없다. 2번째 승부의 승자는 누가될지 주목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



VS



경남 FC

아산무궁화

'단독 선두' 경남을 제지할까?

07월 24일(월) 19:00 @창원축구센터

무패로 단독 선두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경남과의 맞대결이다. 아산의 우승과 승격을 위해서는 경남은 반드시 꺾어야 하는 존재다. 아직 다른 우승 후보들도 경남의 질주를 제지 못하는 가운데 아산이 경남을 제지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





ASAN MUGUNGHWA PLAYER INTERVIEW

아산의 공격을 이끄는 김현의 이야기

아산무궁화축구단 매거진 7월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제가 왜 선정 된지를 잘 모르겠다(웃음). 매거진 모델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매거진 모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산무궁화축구단에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해달라.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군 복무 겸 아산무궁화축구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팀에 들어왔다. 아직 어리지만, 키가 큰 선수로서 체공권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고, 앞에서 팀을 이끌면서 원 톱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최근 몸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렸는가?

아산에 입단 한 이후 송선호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몸이 그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훈련에 많이 신경써서 몸이 올라오는데 집중을 했다.

몸을 끌어 올리는데 꽤 시간도 걸리고 했는데, 힘든 부분은 없었는가?

체력적인 부분을 끌어 올리는데 많이 힘들었다. 저희 기수 형들과 함께 훈련을 했고, 감독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다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했다. 공을 가지고 몸을 끌어올리고, 훈련을 많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올라 온 것 같다.

군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군생활은 어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생활하는데 적응했고, 이제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그런지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다. 전 소속팀인 제주에서는 숙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숙소 생활을 하려다 보니 힘들었다. 숙소생활을 하다 보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숙소안에서 형들이랑 같이 보내다 보니 즐겁다.

쟁쟁한 경쟁상대들이 많다. 경쟁에 자신이 있는가?

지금도 경쟁하고 있지만, 우선은 나이로 축구하는 것 아니라 실력으로 축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니 충분히 자신있고, 올해도 내년에도 밀리지 않고 할 자신이 있다. 출전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다들 응원해주는 분위기다.

친한 동료 선수

나이가 가장 비슷한 한의권 선수랑 친하다. 외출이나 외박받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이다. 같이 많이 어울리고 있다. 나이가 비슷하고, 원래 알고 있던 선수라 그런지 더욱 친해진 것 같다.

(한의권 선수와) 안양전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뛰었다. 같이 뛰면 잘 맞을 것 같은데 같이 뛸 것을 예상을 못했다. 지난 경기와 같은 경우엔 볼을 잘 안줬는데 앞으로 잘 얘기 하고 맞추다보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앞으로 한의권 선수와 함께 만들어갈 플레이를 기대해달라.

김현 선수에게 아산시와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군생활때문이 아니라 K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함께 뛰며 선수로서 성장하고, 우승과 승격을 달성하러 왔다. 저에게 단순히 축구 팀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와 존재인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시즌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는?

올해에 목표한 것은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목표 보다는 팀이 클래식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팀과 제 개인적으로는 승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모든 선수들이 승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이자 꿈은 팬들 기억에 남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동료 선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2017시즌은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된다. 그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 힘을 하나로 합쳐서 꼭 승격하자고 하고 싶다. 마지막에 승격으로 모든 것을 만끽하고 싶다.

감독님이 요구하는 것

많이 뛰어달라고 요구를 하신다. 특히 키가 크고, 공중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싸워달라는 주문을 하신다. 이와 함께 슈팅도 많이 요구하신다. 경기때 감독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경기를 뛴다.

아산과 김현 선수 팬들에게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팬분들께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원해주시는 만큼 제가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골과 승리로서 많이 보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골과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

아산의 공격을 이끄는
공격수 김현

생년월일	1993.05.03
키	191 cm
체중	86 kg
포지션	공격수
입대일자	2017.01.12
전역일자	2018.10.11
선수경력	전북 - 성남일화 - 제주 - 성남FC



'배방 우리동네 설명회'에서 아산시민들과 직접 소통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선수들이 아산시 배방읍 주민들에게 다가가 소통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선수들은 22일, 아산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배방 우리동네 설명회'에 참석해 직접 아산시민들에게 구단을 홍보하며 홈경기 관람을 독려했다.

이 날 행사에는 황도연과 박주원, 그리고 아산시 배방읍이 거주자인 남준재가 구단 알리기에 나섰다.

남준재는 자신도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구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홈경기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린 선수들은 직접 배방읍 주민들에게 사인볼, 예코백, 머그컵 등 구단의 엠블럼이 새겨진 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구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줄 것을 기대했다.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는 선수들을 동네에서 만난 배방읍 주민들은 선수들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에 반가운 기색을 엿보이기도 했다.

마이크를 잡고 구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남준재는 "우리 팀을 알리려면 아산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꼭 많은 분들이 우리의 경기를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아산시민들과 만남을 가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산시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아산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아산무궁화, 천도초 어린이에게 축구의 재미 고스란히 전달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선수들이 천도초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20일, 아산 천도초에서 일일 축구 교실 프로그램인 '비타민 스쿨'을 열어 어린이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축구교실에는 아산무궁화의 조성진, 이창용, 황지웅, 안영규가 일일교사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축구의 기본기를 전수하며 축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은 패스, 드리블, 슈팅 등 다양한 축구 기본기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축구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고자 했다.

또한 선수들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친히 답변해주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손수 싸인을 정성스럽게 해서 전해주기도 했다.

일일교사로 나선 조성진은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곧잘 해 주어서 놀랐다. 열심히 잘 따라와 줘서 큰 보람을 느낀 것 같다. 아이들이 우리 팀과 선수들의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일일 교사의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에게 축구의 즐거움을 전달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앞으로 아산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계속해서 '비타민 스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무궁화, 온양여중 비타민 스쿨 어택!



아산무궁화가 온양여중을 한 번 더 '스쿨어택' 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14일 오전, 아산 온양여중을 한 번 더 방문해 소녀들과 함께 축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산무궁화의 '비타민 스쿨'은 아산 관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일일 축구교실 프로그램으로 아산무궁화 선수들이 직접 일일축구 교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온양여중에서 가진 첫 비타민 스쿨에서 여학생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던 아산무궁화는 일주일 만에 다시 온양여중을 방문, 소녀들과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일일 축구교실에는 아산무궁화의 김동철, 서용덕, 김중국, 이주용이 여중생들의 푸근하고 친근한 일일 선생님이 되었다.

아산무궁화 선수단은 평소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여학생들에게 축구에 대한 흥미를 주기 위해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게임을 진행했다. 꼬리잡기, 수건돌리기, 축구공얼음뽕 등 다양한 게임을 선수단과 여학생들은 금방 친해졌다. 체육활동을 꺼려했던 소녀들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활발한 참여도를 보이며 재미있게 체육 수업을 즐겼다.

특히 이주용과 서용덕은 소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 10대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춤을 함께 공유하며 여중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일교사를 경험한 이주용은 "축구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친구들이 우리의 홈경기를 꼭 보러 와주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KEB하나은행 'K리그 팬사랑 적금' 직접 가입하며 K리그 사랑에 동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구단주 복기왕) 선수단이 KEB하나은행 'K리그 팬사랑 적금'에 직접 가입하며 K리그 발전을 지원했다.

지난 31일 아산무궁화 선수단과 사무국 임직원들은 KEB하나은행 온양지점을 통해 'K리그 팬사랑 적금'에 가입했다.

지난 23일 출시된 'K리그 팬사랑 적금'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타이틀스폰서인 KEB하나은행이 함께 만든 최초의 축구 적금 상품으로 K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프로축구 관람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리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적금 상품답게 'K리그 팬사랑 적금'은 응원하는 K리그 팀을 선택할시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아산무궁화 선수단과 사무국 임직원은 응원하는 팀을 '아산무궁화'로 지정해 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아산무궁화의 주장 김은선은 "최초의 축구 적금 상품이라는데, 우리처럼 많은 분들이 'K리그 팬사랑 적금'에 가입해서서 K리그를 재미있게 즐기시고 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K리그 팬사랑 적금이 K리그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아산무궁화 선수단이 직접 가입한 'K리그 팬사랑 적금'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간 선택이 가능하다. 기준 기본금리 연 1.1%에 각종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2.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판매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팬사랑 적금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는 축구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MUGUNGHWA QUIZ

가로세로 퀴즈를 맞추고 경품도 받아! 아래의 가로세로 퀴즈의 정답을 아산무궁화축구단 공식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가로1 세로1			세로2					세로4	
			가로2			세로3			
		가로3 세로5							
		가로4							
	가로5					가로7		세로6	
		가로6							

가로퀴즈

- 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
- ② 아산시의 시목은?
- ③ 우리 축구단의 공식 명칭은?
- ④ 나라에 무궁을 세워 죽은 후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⑤ 아산무궁화 축구선수들이 군복무OO를 수행하고 있다. OO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 ⑥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
- ⑦ 개인보다 단체를 중히 여기는 정신.

세로퀴즈

- ① 아산시를 대표하는 온천은?
- ② 신의 은혜
- ③ 경찰대학 산하의 체육단이름은?
- ④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
- ⑤ 아산무궁화축구단의 공식후원 병원의 이름은?
- ⑥ 버스나 열차가 일정하게 머무르도록 정하여진 장소

MUGUNGHWA PHOTO

축구공의 위치를 예상해보세요! 예상되는 위치 번호를 아산무궁화축구단 공식 카카오톡 계정으로 정답을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BASSO



감독 송선호



코치 박동혁



코치 안승인



GK코치 최익형



트레이너 엄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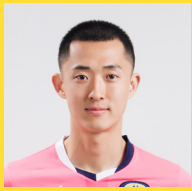
트레이너 정성형



1 GK 손정현
191cm 87kg



13 GK 박형순
184cm 78kg



31 GK 박주원
191cm 80kg



2 DF 정다현
180cm 82kg



3 DF 김상필
188cm 84kg



4 DF 안영규
185cm 73kg



6 DF 조성진
187cm 78kg



12 DF 황도연
183cm 74kg



15 DF 하인호
180cm 78kg



22 DF 김준엽
174cm 68kg



27 DF 박요한
177cm 73kg



29 DF 박선웅
173cm 67kg



32 DF 이주웅
180cm 76kg



37 DF 김동철
180cm 75kg



39 DF 민상기
184cm 79kg



70 DF 이웅
187cm 83kg



77 DF 이도몸
178cm 68kg



5 MF 임선영
185cm 78kg



8 MF 최진수
178cm 71kg



10 MF 이현승
171cm 72kg



14 MF 김은선
182cm 78kg



16 MF 주현재
180cm 74kg



20 MF 최보경
184cm 79kg



21 MF 김종국
180cm 71kg



23 MF 남준재
183cm 75kg



33 MF 이창웅
180cm 75kg



89 MF 박세직
178cm 76kg



99 MF 김재웅
173cm 68kg



7 FW 한지호
179cm 73kg



9 FW 김동섭
188cm 80kg



11 FW 황지웅
178cm 65kg



17 FW 이재안
181cm 81kg



18 FW 공민현
182cm 70kg



19 FW 정성민
184cm 77kg



24 FW 한의권
181cm 72kg



25 FW 김민균
173cm 68kg



30 FW 김현
192cm 86kg



88 FW 서용덕
176cm 69kg

